

청소년만의 야호학교 활동공간 윤곽 나와

전주시청 故 신창섭 주무관 순직 인정

전주시, 청소년 성장 견인할 '야호학교 이후 활동공간 인테리어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합 활동공간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시는 지난 22일 용역수행사인 채가를 가을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야호학교 시민자문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성장을 견인할 '야호학교 이후 활동공간 인테리어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야호학교 활동공간은 지상 4층, 연면적 2365.63㎡(715평) 규모로 △1층 'Ready for' 향해 열린모임공간 △2층 '창작의 향배' 동적인 공간 △3층 '꿈 속의 향배' 정적인 공간 △4층 '세계로 향해' 일상 탈출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1층 열린모임공간의 경우 쿠잉룸과 식사룸, 카페테리아, 물품창고 등 청소년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2층 동적인 공간은 창작공간과 활동실, 라디오방 송실, 스터디룸, 아외데크 등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3층 정적인 공간은 방과후교실과 북카페, 1인 스터디 공간, 영화관람실 등으로 조용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4층 일상 탈출 공간의 경우 댄스 연습실, 밴드 녹음실, 실내암벽등반 등 청소년들만의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청소년 활동공간



전주시는 지난 22일 용역수행사인 채가를 가을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야호학교 시민자문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성장을 견인할 '야호학교 이후 활동공간 인테리어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이 포함된 시민자문단을 구성해 선진지 견학 등 총 10회의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시민자문단은 워크숍에서 '전주형 창의교육'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증별로 이루어질 청소년의 활동을 나열한 뒤 세부

적인 공간 구성에 대해 구체화했다. 시는 최종보고회의 공간 구성안과 야호학교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후 10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

주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력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소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만큼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대응 중 과로사... "승고한 희생 잊지 않을 것"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숨진 전주시청 직원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지난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故) 신창섭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 밤 늦게까지 투근을 해왔다. 특히 확진자의 급속 확산기인 지난 2월 26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과로로 숨졌다.

/김윤상 기자

공동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공예·식품·놀이·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체험프로그램을 펼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예·식품·놀이·생활문화 등 22개의 다양한 공동체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먼저 '건강한이야기(대표 고아라)'는 오는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평화동 지역에서 반찬과 쌀밥, 토종밀 쿠키 등의 요리체험을 진행한다.

요리체험과 함께 바른 재료와 바른 먹거리에 대한 영양교육도 같이 추진해 건강한 식습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만든 음식들은 이웃들과 나눠 공동체 정신을 공유기로 했다.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대표 이국행)'의 경우 월 1회 효자동 서곡마을 인근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전래놀이 체험과 보드게임 대회를 연다.

또 황방산 숲놀이터 방문 체험 등 동네 숲체험을 매주 진행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킷트 체험도 운영기로 했다.

또한 '업사이클링(대표 김현옥)'은 버려지는 폐품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교육과 체험을 오는 9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평화골드클래스마중물(대표 한화

숙)'은 월 1회 순세정제 만들기과 물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한 날(대표 이보람)'의 경우 지자체 행사 시 페이스 페인팅 체험행사를 펼친다.

이외에도 한옥마을 인근 공동체 공유공간(완산구 은행로 14-1)에서는 다음 달 2회에 걸쳐 홀로 식사하는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혼밥요리교실'을 연다.

이곳에서는 또 아이들을 위한 공예 체험프로그램과 민화교육·체험 등 시민과 여행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인원이나 그룹으로 나눠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안전수칙을 지키며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남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전주시 온두레공동체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마을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두레공동체 체험 프로그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마을공동체과(063-281-50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학산에 작은도서관 조성

10월까지 2억2000만원 투입해 책 놀이터로 운영키로

전주시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건지산에 이어 학산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해 평화동 만내제 인

근 부지에 '가칭'학산 숲속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학산 숲속작은도서관은 연면적 70㎡(21평) 규모로, 부지 내 수목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목구조 형식으로 건립된다.

시는 학산 숲속작은도서관을 인근의 학산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책도 볼 수 있는 책 놀이터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도서와 팝업북 위주로 책을 비치하고, 생태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학산과 만내제 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휴

와 베스트셀러 등도 일부 비치기로 했다. 시는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과 동일하게 도서 열람만 가능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자연 속에서 책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을 통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독서동아리 블로그 운영 역량 강화

다양한 독서 콘텐츠 확산 위해 '블로그 아카데미' 교육 실시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독서동아리의 블로그 운영 역량을 강화해 독서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송천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콘텐츠 확산을 위한 '블로그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병하 원광대학교 정보전자상거래학부 교수와 함께 △1강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2강 블로그 마케팅의 이해 및 실제 △3강 검색엔진 최적화 이해 및 최적화 블로그 설계 등으로 진행된다.

도내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기각... "다들 여지 있어"

전주에서도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자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A씨

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불법 유턴 등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들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